

**특보** 2012.4.23 (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 박사장은 지난 3주간 노사 대화를 농락하는가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3주간 투쟁의 수위를 낮추고 유연한 자세로 사측과의 대화에 임했지만 박 사장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간끌기에만 급급했다.

노조는 이달 2일 박 사장의 연임 정당성을 묻는 투 표 실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성명을 내고서 4

일부터 사측과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사측과 대화에 나선만큼 사장 출근저 지 투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 다. 나아가 파업 중임에도 사안의 중 대성과 대화 국면을 감안해 4·11 총 선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이러한 담대한 양보에도 사측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 었다. 사측이 노조와 첫 대화에서 보 인 입장은 박 사장의 제안이 최종안이 라며 노조가 이를 수용할 것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어 6일엔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 노사간 대화 분 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대화 시 기임에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업무복귀를 종용하고 보직 간

부급들에게 사측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도록 촉구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한쪽에선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선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사측에 노조는 지난 9일 3주 총력 투쟁기간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탄력적인 자세로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박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첫 제안을 고수 할 뿐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2개월 이내 또는 6월 말 이전 사장 거취 투표라는 4-7기 중재안을 노조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사측은 '고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조 입장에선 박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에서 투표 수용과 선투표로 물러선 뒤 재차 선투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까지 양보했지만 사측은 원래 입장에서 반 발짝도 안움직였다.

'3년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3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사장이 2년9개월 양보한 것이고, 노조는 3개



월밖에 양보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뿐이었다. 사측이 보인 유일한 양보는 박 사장의 '2+1 안'에서 1개월 중 일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4·11 총선 이후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박 사장은 '경영권을 투표에 부칠 수 없다'며 자신이 내놓은 제안인 투표 실시안을 못 받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약속된 노조와의 대화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도 많았다.

사측은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을 모집할

노조 입장에선 박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에서 투표 수도 있다는 뜻을 흘리고, 특파원에 대한 업무 복귀 -용과 선투표로 물러선 뒤 재차 선투표를 고집하지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 사측의 대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은 지난주가 절정이었다.

> 지난 주 중반 사측은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삼아 타결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의해 노조는 이에 적극적

> > 으로 응했다. 그러나 협상은 20일(금)에 딱 한 번 열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사측의 입장 탓에 그냥 지나갔다.

그사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참급 기수의 성명은 노사간 '집중 협상'을 이유로 보류됐다. 사측이 갑작스럽게 배수진을 친 듯한 협상을 제시해놓고선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화 카드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선 지 3주 가까이 됐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한발짝, 한발짝 양보했지만 박 사장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다.

결국 박 사장은 대화를 명목으로 노조의 움직임을 묶어두고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파업 대 오가 와해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대화로 풀 것인가, 투쟁의 끝을 볼 것인가'란 성명을 내고 3주 총력투쟁 마지 막주에 가열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 노조가 제풀에 지칠 것이란 박 사장의 상황 인식이 오판임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박 사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화로 풀 것인가, 투쟁의 끝을 볼 것인가

노동조합이 선언했던 3주 총력투쟁의 마지막 주가 밝았다.

4월 초부터 진행된 박정찬 사장 쪽과의 협상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 적한다. 이 없다.

박 사장 쪽은 지난주 중반에 주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타결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의했지만 그 뒤에 보여준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킬 정도였다.

협상은 20일(금)에 딱 한 번 열렸고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아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박 사장 쪽이 데드라인 운운하면서 집중 협상을 꺼낸 배경에 악

의적이고 기만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음을 지 적하다

지난주는 일부 기수를 중심으로 박 사장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자는 사내 서명운동이 가시화되던 때였다.

박 사장 쪽은 이런 시점에서 마치 배수진을 친 듯 집중협상 카드를 던져놓고 뒤로는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노린 회유와 압박을 계속했다.

이는 노조가 선배들의 중재안 수용 등 타협을 위한 대승적 양보 의사를 밝혔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2면에 계속 🐨

연합노보 2012.4.23 (월)

## "총력투쟁의 중요한 마지막 주가 밝았다" 결의 집회

총파업 40일째를 맞은 연합뉴스 노조는 도이어졌다. 23일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총 설 것을 다짐했다.

본사와 지방 조합원 15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총력투쟁의 마지막인 이번 주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승리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3주간 총력투쟁을 선언한 노조는 4~7기 선배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대승적으 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사태 해 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공 위원장은 "우리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 해 상황을 풀어보려 했으나 사측이 성의 있 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남은 1주일은 대화의 창을 열어놓 되 이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준비하 는 시간"이라며 "조금 더 힘을 모아 박정찬 사장을 압박한다면 해결의 빛이 보일 것"이 라고 독려했다.

앞으로 투쟁이 한결 힘을 얻도록 주인의 식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 싸우자는 목소리

노조 쟁의부장을 맡은 김병규 조합원은 지 력투쟁 마지막 주에 더욱 강력한 싸움에 나 난달 2일 조합원총회에서 파업을 결의한 다 음 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사연을 소 개했다.

> 김 조합원은 "그동안 뒤에서만 투덜거리 곤 했던 불만을 처음으로 앞에서 드러낸 것 이 감격스러웠던 것 같다"면서 "정말 이기고 싶다. 성과 없이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 생활 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원 은 "한달 반 전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조합원들도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겠 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회부 민경락 조합원은 "우리도 더 강하 게 나서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포 섭했으면 한다"며 "승리가 중요하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 강건택 조합원은 "40일을 맞으면 서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분위기를 느끼면 의지 를 다지고 승리의 열망이 더 커진다"며 "주 변 사람들을 독려하면 함께 힘을 얻고 경영 진과 선배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 ☞ 1면에 이어

연합뉴스 역사는 이번 파업투쟁의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한국언론 사상 최초로 대규모 특파 원단까지 참여한 역사적인 투쟁에서 어느 누구도 제3자 이거나 구경꾼일 수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연합뉴스 구성원은 각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칫하 면 결과적으로 연합뉴스 전체가 아니라 박 사장 개인 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야 한다.

이 사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 팔짱을 풀고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파업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 또한 총력투쟁기간에는 예외없이 대오에 합류해야 한다.

박 사장이 조직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연합 뉴스 구성원이 용단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노조는 박 사장이 사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 없이. 상황 극복을 위한 즉흥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몰입한 다면 본격적인 투쟁을 채비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박 사장 선임 과정이 과연 합법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이다.

또 본인 스스로 제안해놓고도 온갖 명분을 붙여 피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원투표를 계속 거부한다 면 노조 주관으로 엄정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나아가 노조 가입을 앞둔 수습기자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다.

우리는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와 파업투쟁 승리를 위 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 2012년 4월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쟁의대책위원회

### -전략사업국 연합뉴스 구석구석

는 중추부서다.

한마디로 철도공사 · 공항철도와의 협약, 방송시 스템 운영, 콘텐츠 제작, 새로운 방송·광고매체 개 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략사업국의 산하에 부서는 전략사업부 하나다. 전략사업부는 전략기획팀, 기술운영팀, 콘텐츠팀을 두고 있다. 세 팀에 소속된 조합원은 모두 6명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새롭 게 콘텐츠를 활용할 매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 아지면서 전략사업국이 탄생했다고 한다.

유래를 보면 2004년 KTX 영상방송 사업을 시작 하면서 신설된 전략사업본부는 전략사업부와 마케

전략사업국은 새로운 방송·광고 시장을 개척하 팅부로 출발했다. 이후 뉴스 Y가 개국하면서 마케팅 부는 신설된 TV마케팅부와 함께 마케팅국으로, 전 략사업부는 전략사업국으로 분리되면서 지금과 같 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 전략기획팀은 철도공사와 공항철도와의 협약 업 무와 새로운 방송 및 광고 매체 개발 등을 비롯한 전 반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기술운영팀은 방송시스템 운영, 방송설비 개량, 방송시스템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 개발 등을 맡는 다. 가령 브라운관 모니터 2대가 달렸던 KTX 객실 에 17인치 와이드 LCD 모니터를 설치하고, 멀리 있 는 승객들도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수량도 늘렸던 일 등이 기술운영팀의 주요 업무다.

또, 운행 중이 아니어서 냉난방이 안 되는 열차 안 에서 찜통더위와 혹한의 추위에 시달리며 1년여에 걸쳐 팀원들이 고난도 작업을 해낸 끝에 양질의 방 송서비스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콘텐츠팀은 열차 승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광고를 제작하고 편성하는 일을 하 고 있다.

전략사업국의 한 조합원은 "KTX 사업을 성공적 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 는 인천국제공항철도(A'REX) 영상방송 운영 및 역 사 광고영업권을 확보해 회사 수익 증대에 크게 기 여해 오고 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